

보도설명자료 ('22. 12. 2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IMO(국제해사기구)가 '25년부터 LNG 추진선을 규제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, 정부는 향후 IMO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및 규제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산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 (12.21일자 아주경제 「국제해사기구, LNG선 메탄 규제 움직임.. 조선·해운업계 '초긴장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보도내용

-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IMO 제7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(MEPC 79)에서 내년 7월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추가로 규제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기로 함
 -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LNG 추진선이 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메탄에 대한 규제 논의가 있었으며,
 - IMO가 LNG 추진선(메탄)에 대한 규제를 결정하면, 늦어도 2025년부터 관련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음
 - 이에 해운업계는 당장 LNG 추진선을 발주해야 할지 눈치를 보기 시작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IMO가 2025년부터 LNG 추진선의 메탄을 규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음

- 또한 해운업계가 LNG 추진선의 발주를 눈치본다는 것과 달리 클락슨(글로벌 해운조선 시황분석 기관) 통계에 따르면 올해 LNG 추진선의 전세계 발주량은 전년 대비 46% 증가하였으며, '21년은 '20년 대비 119% 증가함

* 전세계 LNG 추진선 발주량 (괄호는 전년대비 변동)

발주량(만CGT) : (20) 668 → (21) 1,461 (119%↑) → (22) 2,133 (46%↑)

발주척수(척) : (20) 121 → (21) 322 (116%↑) → (22) 356 (11%↑)

- IMO는 2023년 7월까지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(Initial IMO GHG strategy, '18.4)*을 수정할 계획인바,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산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임

* 2050년까지 국제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50% 감축('08년 대비)

※ 문의 : 조선해양플랜트과 송현주 과장(044-203-4330) / 박주현 서기관(4337)